

코로나19에도 농민 소득 역대 최고...직불금·재난금 대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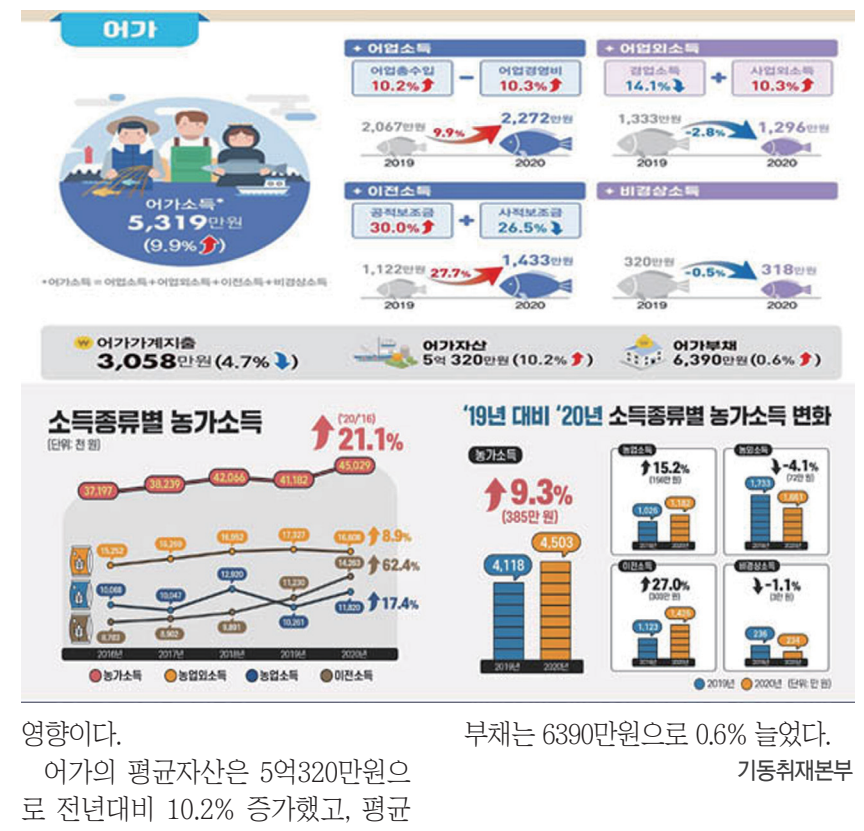
통계청, 2020년 농·어가 경제 조사결과 농가 소득 4503만원, 전년비 9.3% 증가 어가 소득 5319만원, 전년비 9.9% 늘어 공적보조금 등 이전소득 30% 가까이 ↑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소득이 4500만원을 넘어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재난지출금 등 공적지원 소득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4503만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3720만원 대비 21.1%(783만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원을 돌파한 뒤 2019년에는 4118만원으로 줄었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종류별로는 농업소득이 1182만원으로 15.2% 늘었고, 농업 외 소득은 1661만원으로 4.1% 감소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1426만원으로 전년(1123만원) 대비 27%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전인 2019년 대

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약 1조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평균 지급액은 203만원으로 전년(109만원) 대비 86%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신설하면서 중소규모 농가 소득이 늘었다. 여기에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과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망이 확충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적지원소득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가 평균 자산도 5억6562만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평균부채는 3759만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었다. 평균 농가지출은 3449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줄었는데 소비지출은 2692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오락·문

화, 음식·숙박, 교육비 등의 지출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이는 50대 농가소득은 7041만원으로 처음 7000만원대에 진입했다. 공적보조 증가로 70세 이상 농가 소득도 지난해 3390만원으로 21.1%나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 역시 5319만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평균 가계지출은 3058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줄었다. 소득종류별로는 어업소득이 2272만원으로 9.9% 증가했고, 어업 외 소득은 1296만원으로 2.8% 줄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1433만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사적보조금이 26.5%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이 30.0% 늘어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이색체험 매장 개장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최근 백화점 본관 3층에 미리 준비한 사진을 프린팅하거나 밀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하는 색을 입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향기로운 꽃 디퓨저를 만드는 등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아트플레이크' 매장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토익 성적, 세계 12위...아시아 2위

독일·필리핀·튀니지·코스타리카·칠레 순 아시아는 필리핀 1위...인도, 말레이·홍콩 순

전 세계 토익(TOEIC) 시행 국가 중 우리나라의 평균 성적이 12위로 집계됐다. YBM 한국 TOEIC위원회는 2020년 전 세계 TOEIC 시행 국가 중 우리나라의 평균 성적은 683점으로(990점 만점) 성적 분석 대상 32개국 중 12위, 아시아 국가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평균 성적 678점 대비 5점 상승한 성적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토익 평균 성적은 독일이 8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필리핀(773점) ▲튀니지(750점) ▲코스타리카(749점) ▲칠레(745점) 순이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 필리핀(773점) ▲2위 한국(683점) ▲3위 인도(674점) ▲4위 말레이시아(634점) ▲5위 홍콩(589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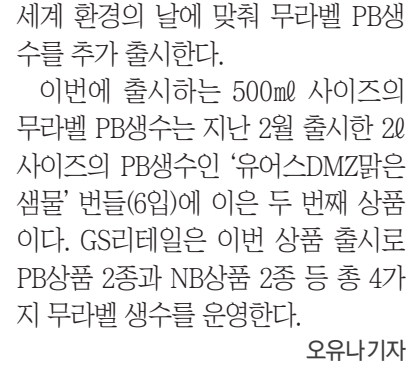
이외 전 세계 토익 응시자들의 연령대는 21~25세가 43.1%로 가장 높았다. 20세 이하(20.7%), 26~30세(16.8%) 순이다. 10~20대가 전체의 약 80.6%를 차지했다. 응시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각 50%를 차지했다. 토익 응시 목적은 '취업'이 29.3%로 가장 높았다. '학습 방향 설정'(26.1%) '졸업'(23.7%) 순이다. 이외 '승진' 11.2%, '언어 연수 성과 측정' 9.8% 등이다. 응시 목적별 평균 성적을 보면 '취업'이 636점으로 가장 높고 '학습 방향 설정'(589점), '졸업'(585점), '언어 연수 성과 측정'(552점), '승진'(542점) 순이다.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토익은 전 세계 160개 국가 1만4000여개 기관에서 활용하는 실용 영어 능력 시험"이라며 "이번 자료를 통해 전 세계 국가와 우리나라 응시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시자의 연령별, 성별, 업종별, 전공별 비율 및 평균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GS리테일, 세계 환경의 날 맞아 무라벨 생수 확대

드(PB) 생수 상품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7일 500ml 사이즈의 무라벨 PB생수 '유어스리산맑은샘물' 변들(20입)을 전국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 온라인 정보기물 GS프레시에서 선보인다. 최근 고객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착한 소비 트렌드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무라벨 PB생수를 추가 출시한다. 이번엔 출시하는 500ml 사이즈의 무라벨 PB생수는 지난 2월 출시한 20 사이즈의 PB생수인 '유어스DMZ맑은샘물' 변들(6입)에 이은 두 번째 상품이다. GS리테일은 이번 상품 출시로 PB상품 2종과 NB상품 2종 등 총 4가지 무라벨 생수를 운영한다. 오유나기자



“우리 농산물 펫푸드로 반려견 비만 예방하세요”

흑삼·홍삼으로 만든 펫푸드 체중감소 효과 동애등에 유충, 콜레스테롤 농도 10% 감소

농촌진흥청은 국내 생산 농산물인 흑삼과 홍삼, 동애등에 유충(애벌레) 등을 소재로 반려견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반려동물비만예방학회에 따르면 반려견 중 55.8%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국내 한 동물병원의 조사에서도 반려견의 약 40%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가천대학교와 협업체 흑삼과 홍삼 복합물로 만든 반려동물 식품을 반려견에게 먹었을 때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고열량으로 급여한 반려견 그룹 가운데 흑삼과 홍삼 복합물 식품을 급여한 그룹이 급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율이 8% 포인트(p) 낮았다. 반려견의 지방 축적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신체체질지수(BCS) 증가율도 10%p 낮았다. 즉 흑삼과 홍삼 복합물 식품이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유용곤충인 동애등에 유충을 활용해 반려견 콜레스테롤 저감 효과가 있는 식품도 개발했



다. 동애등에 유충을 넣은 식품을 먹인 반려견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약 1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수입 식품에 대응한 국내 반려동물 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이마트24, 제철과일 할인 판매...“근거리 쇼핑족 잡는다”

주책가 상권이 전체 상권 과일 매출 70% 이상 차지



이마트24가 제철 과일 할인 판매를 지속하며 근거리 쇼핑족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마트24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고령우곡그린수박(6~7kg)을 1만6800원에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출시 후 31일까지 2만1800원에 판매하고 6월 초에 진행되는 7일장 기간 동안 5000원 할인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시기 가장 맛있는 수박 산지 중 한 곳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서 생산되는 우곡수박은 수경 후 45일 이후부터 수확이 가능하지만 당도를 높이기 위해 60일 동안 충분히 익혀 단맛과 식감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달 8일부터 6월 말까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서 수확되는 맹동수박(6~7kg)을 2만8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월초부터 유명 산지의

제철과일을 초특가로 판매함으로써 근거리 쇼핑 채널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마트24가 이달의 과일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 4월(성주참외)과 5월(청송보조개사과) 과일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85%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주책가 상권이 전체 상권 과일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며 근거리 쇼핑채널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상현 이마트24 신선식품 바이어는 “코로나19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집에 두고 먹을 대용량 과일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철과일을 할인판매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하절기 가장 많이 찾는 수박을 초특가로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보험사 1분기 순이익 전년비 164% 급증

금감원, 2021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발표

보험회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64.1%나 증가했다. 금리·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와 삼성전자가 특별배당 등의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보험사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058억원(164.1%) 증가했다. 생보사 순이익은 2조5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764억원(228.3%) 늘었다. 금리·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로 보험영업

순이익이 개선됐고, 삼성전자가 특별배당 등으로 배당수익이 증가한 덕분이다. 손보사도 1조3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94억원(91.5%)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과 전년도 고역사고 기저효과로 손해율이 하락해 보험영업순이익이 개선됐고, 배당수익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52조4921억원으로 전년 동기(50조6887억원) 대비 1조8034억원(3.6%) 늘었다. 생보사는 27조96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56억원(4.5%)

증가했다. 손보사도 24조 5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78억원(2.5%) 늘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8%와 11.1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1%포인트, 6.6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증준비금 감소, 삼성전자가 특별배당,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손해율 하락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다만 이익 증가가 수익구조 개선보다는 외부 요인과 일회성 이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